1. 서론

기존에 연구했던 단일 팩터 모델이 아닌, 다중 팩터 모델을 연구했다. 그 이유는, 단일 팩터 모델에서 다룰 수 있는 것이 한정적이기 때문이다. 앞으로 다룰 팩터는 PBR, PER, ROE, Momentum, Dividend yield, 영업현금흐름, 영업이익/자기자본 등이다.

2. 데이터 및 방법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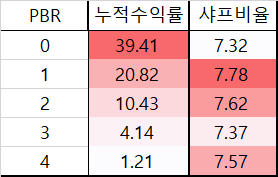
투자기간은 2001년 3월 3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이며 Momentum 전략을 제외한 모든전략은 분기 리밸런싱을 했다(Momentum 전략은 전략 특성상 월별 리밸선싱을 했다.). 거래 비용은 고려하지 않았다. 이 연구에서는 Forward 팩터는 사용하지 않고 전부 Trailing 팩터를 사용하였다.

전략의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로는 누적수익률과 샤프비율을 사용하였다.

3. 결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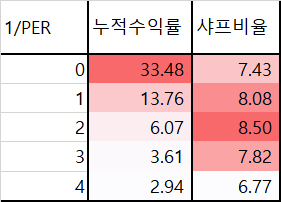
결과적으로 저평가된 주식(PER, PBR이 낮은)들의 장기 누적수익률이 높았으나 샤프비율이 가장 낮았다. 그 이유는 수익률이 높은 만큼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이다.

3.1 PBR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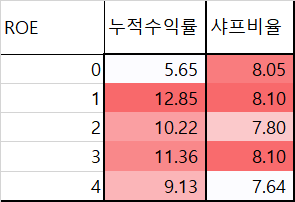


분위가 작을수록 PBR값이 작은 그룹이다. 저평가 될수록 누적수익률이 높은 경향을 나타냈으나 샤프비율은 그런 경향이 전혀 없었다.

3.2 PER



3.3 ROE



분위가 작을수록 ROE가 큰 그룹이다. ROE가 클수록 누적수익률이 좋은 경향은 없었다.

3.4 Dividend Yield

